

인터넷산업

지나친 우려는 ‘두려움’일뿐

● 인터넷/게임

Analyst 김동희
02. 6454-4869
donghee.kim@meritz.co.kr

9월 9일 금융 당국- 핀테크 기업 간담회 결과에 주목할 필요

9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서비스들의 변화 방향성과 유예기간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빅테크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9월 25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상품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로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데 기인한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UI 개선 및 자회사들의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펀드판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대출 중개는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적용)로, 보험판매는 자회사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네이버의 경우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인 영향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리스크 시작으로 보기는 지나친 우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디지털세, 개인정보 활용 금지, 인수합병 제한, 부당행위 과징금, 구조적 분할 등으로 구체화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연초대비 30~60% 상승하며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리레이팅은 지속되고 있다.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레버리지 강화의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훼손, 개인·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혁신과 성장 인센티브 억제할 위험과 소비자의 네트워크 효과도 저해할 수도 있어 쉽지 않은 이슈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Pure player 아닌 Super app으로 성장하고 있어 외부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제한적이다. 참고로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 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테크 기업간 경쟁은 공존하는 시장내 경쟁이 아닌 지배적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양상이다.

표1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주요 사례 검토 결과	
주요 내용	관련 사례 검토결과
1. 금융상품 정보제공	
A.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서비스로 표시 B. 펀드 등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 송금 → 계약내역 관리' 가능 C.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 D.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	➡ 중개에 해당 -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2. 금융상품 비교·추천	
- "1."의 특징(A~D)이 대체로 공통되며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예: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	➡ 중개에 해당 -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
3.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보험상담] -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를 연결	➡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자문서비스 -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 - 분석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할 보장사항과 관련 보험상품(분석서비스 제공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	➡ 중개에 해당 - 분석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보험설계 등)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넷마블로부터 자기주식 직접취득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김동희)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